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개최

전주시, 9월 22~24일 전라감영서 음악 통해 동학농민혁명·세계 각국 혁명예술 가치 조명

동학농민혁명의 이야기가 담긴 전래민요인 '새야새야 파랑새야', 남미의 혁명음악, 프랑스혁명과 맞닿아 있는 '레미제라블' 등 세계혁명의 노래를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전주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라감영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전주를 혁명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2022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혁명의 노래'를 개최한다.

이 포럼은 세계 각국 혁명예술의 정신을 음악과 노래로 전달해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유명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예술을 통해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기존 학술포럼과 더불어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포럼 첫째 날인 22일에는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혁명정신의 예술적 승화'를 주제로 광병창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와 영화 '기생충'

의 번역가로 저명한 달시 파켓(Darcy Paquet)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후 성기섭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심상욱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독일 바덴 뷔템베르크 기악협회, 마인츠 음악재단 수상자이자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한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Erwan Richard)가 이번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의미와 취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23일 저녁에는 전라감영 서편 광장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영화 '레미제라블' OST를 비롯해 세계의 다양한 혁명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교향악단 공연에는 비올라의 에르완 리샤와 함께 전주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함께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전주시립국악단이 '레미제라블' 등 혁명영화 속 음악과 노래를 국악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단막창무극 '녹두꽃, 전주에게'와 국악데뷔 앨범 '진혼' 등이 첫선을 보인다.

포럼 기간인 23~24일에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에서 전주문화재야행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포럼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기존의 학술적인 포럼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서백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포럼은 음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이자 다채롭고 풍성한 세계의 혁명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최초 전시지원 '문영민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 9월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문영민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영민 작가는 첫 전시회를 재단의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열게 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MZ세대 특유의 자유로움과 대담함이 잘 나타나는 비비드한 컬러감의 'different'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작가에 따르면 수많은 색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색 하나를 고를 때 왜 좋아하는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같은 재료와 같은 기법에 찍어낸 시리즈조차도 다 다르게 생겼다. 나의 작품은 시리즈에 사람의 피부 결을 더해 표현해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알아주고 각자의 색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안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당신이라는 색은 아름답다고 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도내 시각 분야 신진·경력 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해



문영민 작가 대표작

전시 공간 무료 대관과 홍보를 지원하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해 시각분야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동상골 어린이 그림 잔치 - 애들이 그림과 노을~자'

연석산 미술관, 9월 16일까지 전시

연석산 미술관(관장 박인현)은 오는 9월 16일까지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동상골 어린이 그림 잔치 - 애들이 그림과 노을~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석산 우송미술관 제2전시실에 동상초등학교 15명 학생의 평면 작 29점과 설치작품이 전시됐다.

이 전시는 연석산 미술관과 전국 8대 오지인 동상골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상초등학교와

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행사로, 천혜의 자연풍광을 벗 삼아 생활하고 있는 순박한 어린이들의 동상골 체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전시하는 그림 잔치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15명의 아이들이 담아낸 작품에는 저마다의 독자적이며 자유로운 표현 방법과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인다.

전시에 앞서 총 3회에 걸쳐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환성 교장은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참

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내면에 담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마음껏 표출함으로써 자긍심과 성취감, 그리고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진희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장은 "이 교육을 통해 큐레이터와 작가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생겼다.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애써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꼬마 작가님들의 작품을 행복찬 마음으로 감상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유지혜 작가와 함께한 '전주 도서관 여행'

시민 15명과 서학예술마을·다가여행자·책기동도서관 방문

전주시는 30일 유지혜 작가와 함께 전주의 특성화도서관을 돌아보고 강연을 듣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매체로 소통하는 MZ세대에게 전주의 도서관 인프라와 독서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지혜 작가는 △조용한 흥분 △나와의 연락 △쉬운 전국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는 저자이자 11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파워 인플루언서이다. 현재 메일링 서비스 '유지혜 페이퍼'를 발간 중이다.

유 작가는 이날 △사진, 음악, 예술 등 분야별 아트북·예술도서와 작품 등이 비치된 '서



전주시는 30일 유지혜 작가와 함께 전주의 특성화도서관을 돌아보고 강연을 듣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예술마을도서관'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

공하고 여행의 길잡이가 되는 '다가여행자도서관' △전주의 독자 생태계를 담은 '책기동도서관'을 함께 둘러봤다.

도서관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에서는 '연결'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책 이야기에서부터, 런던·뉴욕·베를린 등에서의 일상 및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 등 풍성한 경험을 전달하는 시간이 가졌다.

유지혜 작가는 "도서관마다 주제를 가진 특별한 공간과 큐레이션이 있어 여행의 재미를 더했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전주 도서관 여행에서 찾았다"는 인상 깊은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을 기록하는 유지혜 작가와의 책여행을 통해 MZ세대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를 바란다"며 "MZ세대만큼 개성 넘치는 전주 도서관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 청년예술단체 문화아리, 백운·주천면으로 찾아가는 공연

진안군은 청년예술단체 문화아리(대표 이윤혜)와 백운면, 주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까지 총 4회 동안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청년예술단체 문화아리가 공연 문화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김해린 청년 국악인과 하정호 청년 음악인이 직접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1시간여 동안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백운면에서 포문을 연 공연은 9월 15일 백운면, 9월 20일, 9월 28일에 주천면에서 열리며 이번 사업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 성수면에 자리 잡은 청년예술단체 문화아리는 지난 4월 전북청년허브센터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진안군 홍보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아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안군 홍보 영상 제작, 지역 이미지를 담은 이모티콘 제작, 데미샘 알리기 프로젝트, 진안 청년 농부 캐릭터 개발 및 아트 현판 제작, 찾아가는 공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화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 眞' (이하 실버마이크 전북권) 8월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31일 오후 8시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와 9월 3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전북도청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잔치에서 각각 진행된다.

실버마이크 전북권은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린다. 한 공연 당 5팀의

악기 연주, 노래, 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